

韓國家族計劃事業의 評價

家族計劃研究院長 洪 鍾 寬

1. 緒 論

우리나라 家族計劃事業의 特質을 紹介하면 一言之下에 “計劃된 社會的 行動(planned social action)”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計劃된 社會的 行動이 바로 國家的인 經濟·社會·厚生發展과 密接히 聯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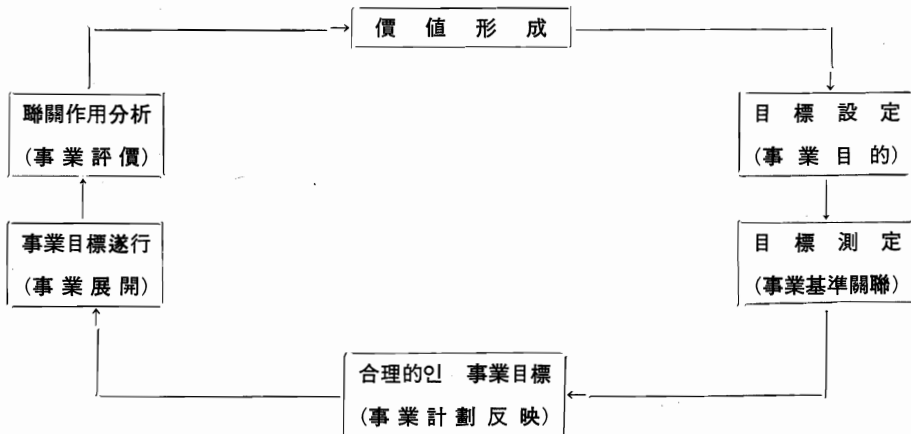
따라서 現行 家族計劃事業은 國家事業으로서 뚜렷한 目標가 賦與되어 있다. 이 目標에 따라 1962年 以後 꾸준하게 展開해 왔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確實한 假定을 設定하고 그 假定의 成就 與否에 따른 價値 創造의 成敗를 繼續해서 測定하여야 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볼 때 “評價”란 基本的으로 “設定된 program”을 中心으로 그 事業(activity)의 效果와 價値를 判定하는 過程으로 定義된다.

따라서 家族計劃事業의 評價內容은 事業推進에 따른 “實績”과 그에 의한 “結果”가 中心이 됨은 물론이다.

program을 改善하고 그 效率性を 따지는 일도 評價 業務의 一部로서 事業進行에 隨伴하는 反作用이나 여러가지 葛藤 現象을 除去하는 등 評價는 事業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하나의 繼續的인 社會 過程(continuous social process)이라 말할 수 있다.

그 過程을 評價面에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概念 圖式으로 說明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家族計劃事業은 年輪을 거듭할수록 事業 進展에 적지 않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었으나 지난 10餘年間的 事業은 比較的 成功的으로 遂行되어 왔다고 國內外專門家들은

評價한다.

1962年 家族計劃事業이着手된以來最近開發된評價方法論에立脚하여政府program을評價해왔으나現今의家族計劃事業이初創期の 그것보다 더욱多樣해지므로써評價에보다 많은關聯科學의動員이要請된다.

從來의評價는 주로行政副産物인月報나 쿠폰을 통한報告體制나 KAP 調査에 의한事業實績對避妊態度的變動 내지는出産力低下를 다룬微視的評價에그친感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事業實績→實績에 따른結果(出生防止數)→國家社會에 미치는效率성에이르는巨視的인立場에서評價하지 않고서는program의存立과推進에 있어確固한意義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家族計劃事業은 몇가지社會·人口學的인指數例컨대出産力, 理想子女數, 生活水準, 都市·農村의構成比 등을勘案할 때, 그리고過去10年間 거의變貌되지 않았던事業推進方式을考慮해 볼 때,轉換點에 이르렀다고指摘된다.

이러한指摘事項은 적어도評價面에서 우리나라의家族計劃事業이 새로운側面에서診斷되고方向轉換을摸索해야 할 것을要求한다.

이러한觀點에서本稿에서는 지난10餘年間推進되어온家族計劃事業의現況과成果, 問題點, 그리고事業展望에관하여略述코자 한다.

2. 事業現況 및 成果

1961年 우리나라의人口는 2,500萬名으로年間人口增加率は約3%에達하였다. 이러한增加率이持續되었다면人口는 23年마다倍增되어 46年後에는 1億에達하게 될 것이며, 1世紀도 못되어人口는 5億으로膨大될 것이다. 이러한急激한人口成長은 앞으로經濟社會發展에 큰障害가 될 것을認識하고政府는 1961年 家族計劃을國家政策으로採擇하여 1962년부터保社部主管으로推進토록 하였다(目的意識의確立).

經濟開發長期計劃에包含된人口增加率目標는 1961年當時의約3%를1次5個年度末인 1966년까지 2.5%로 第2次5個年度末인 1971년까지는 2.0%의水準으로鈍化시키는 것으로目標를設定하였으나(事業目標의樹立) 1970年現在人口增加率は 1.8%로 크게低下되었음이인구센서스結果로 밝혀졌다.

現在進行中인 第3次5個年計劃(1972~1976)에 의하면 1976년까지人口增加率을 1.5%水準으로低下시키고 1981년까지는先進國家의水準에 가까운 1.3%로低下시킬 것을目標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長期計劃上에設定된人口增加率目標를達成하기 위한家族計劃事業의具體的인方案으로는 1976년까지全體可妊有配偶者 477萬名中約 48%가家族計劃을實施토록 하고 이中 33%는政府負擔에 의해서, 15%는自費負擔으로避妊이實施되도록計劃되었고 1981年度事業目標는可妊女性 588萬名の 65%가家族計劃에參與토록 하여 이中 46%는政府負擔으로 나머지 19%는自費負擔으로實施하는 것으로目標를設定하였다.

지난 12年間(1962~1973)의事業實績을 보면子宮內裝置 280萬名을爲始해서 먹는避妊藥 94萬名, 不妊手術 22萬名, 콘돔 180萬名으로總 576萬名이政府事業의惠澤을 받았다. 그리고今年度事業目標인 82萬名을 합하면今年末까지家族計劃에參與한 사람의數는約 658萬名이 될 것이다. 그러나여러가지理由로脫落된者와年齡이 지남에 따라自然不妊이된 사람을除外하면今年末現在政府事業에 의해서避妊을實施하는人口數는 112萬名이 될 것으로推定되고 있다.

1973년에 當院에서實施한實績調査에 의하면 450萬에達하는 20~44歲의有配偶可妊女性中

約 36%에 該當하는 162萬名(自費負擔 包含)의 婦人이 避妊을 實施하고 있으나 臺灣의 57%나 香港 52%에 比하면 아직도 低調한 便이다.

그 間의 家族計劃事業에 의한 實績에 따른 出生防止 效果를 測定하여 보면, 子宮內裝置에 의해 90萬名, 不妊手術에 의해 33萬名, 먹는 避妊藥에 의해 33萬名, 콘돔에 의해서 34萬名으로 總 190萬名의 出生이 家族計劃에 의해서 抑制된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며 1件의 出生을 防止하는데 約 2,450원(直接費)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家族計劃事業의 效果는 出產力의 低下라는 側面에서 評價될 수 있다. 즉 1960年 센서스 結果에 의하면 當時 우리나라 出生率은 人口 1,000名當 43이었으나 1970년에는 29로 顯著하게 低下되었고 出產 終結時 平均子女數도 1960년에 婦人 1人當 6名에서 1970년에는 4名으로 減少되었다.

센서스 資料와 근소한 差異는 있으나 最近 資料로서 1973년에 當院에서 實施한 出產力調查 結果에 의하면 1960年の 平均子女數가 婦人 1人當 6名에서 1973년에 4名으로 顯著하게 低下되었고 年齡別 出生率도 急激한 變化를 보였다.

즉 15~24歲 年齡層의 出產率은 41.1%가 減少되었고, 25~29歲에서는 3.8%가, 그리고 30~39歲 年齡層에서는 47.3%의 出產率이 減少되어 平均子女數는 34%가 減少되었다.

韓國 婦人의 年齡別 出生率

年 齡	1960~1961	1972~1973
15~19	31	7
20~24	249	158
25~29	338	325
30~34	277	205
35~39	221	95
40~44	124	31
45~49	16	5
合計出產率 (平均 子女數)	6,280 (6.3名)	4,130 (4.1名)

그러나 1970年 以後 出產水準이 停滯하고 있다는 事實을 看過해서는 안되겠다.

어떻든 지난 10餘年에 걸쳐 이루어진 出產水準의 低下에 따른 人口成長의 鈍化는 單純히 家族計劃事業의 成果에만 起因된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의 社會·經濟·文化的 要因이 複合적으로 影響을 미친 것은 물론이며 直接的인 要因으로는 結婚年齡의 上昇 및 人工妊娠中絶의 擴散이 크게 寄與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한 調査 結果에 의하면 事業 開始 10年間に 이루어 놓은 約 30%의 出產力 低下는 그 中 12%가 結婚年齡의 上昇, 7%가 人工妊娠中絶, 그리고 나머지 11%가 家族計劃事業에 起因하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는 點을 勘案할 때 우리나라의 家族計劃事業이 出產力 低下에 미친 直接的 寄與度와 役割에 관하여서는 疑心할 餘地가 없다.

그러나 向後 家族計劃事業의 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해서 事業內의으로 더욱 補完改善되어야 할 點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繼續使用率의 向上

政府에서 普及하고 있는 避妊方法中 루우프나 먹는 避妊藥의 繼續使用率에 관한 問題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局限된 問題가 아니고 同 事業을 推進하고 있는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겪고 있는 問題로서 從前의 方法은 避妊效果나 醫學的인 面에서 완벽을 기할만한 것이 없고 最近에 開發된 方法이라 할 지라도 계속 사용율에 있어서는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過去 數年間 各國에서 새로운 피임방법이 연구되어 왔으나 아직 아무런 進展이 없으므로 短時日內에 畫期的인 避妊方法이 開發되리라는 展望은 없다. 따라서 現在 普及하고 있는 避妊方法의 결점을 最大로 補強하여 계속 보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繼續使用率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어비스 提供의 質的向上과 事後管理의 改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人工妊娠中絶의 支援

家族計劃事業은 適切한 避妊方法의 勸獎 및 施行 支援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願치 않은 妊娠이나 避妊失敗의 경우에는 많은 婦人이 스스로 人工妊娠中絶을 實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境遇 過去 10年 사이에 避妊 實踐率과 더불어 人工妊娠中絶率이 상당히 上昇되어 왔다. 1960年경에 한 婦人當 平均 0.6回 程度 人工妊娠中絶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65년에는 1.3回, 1971년에는 1.6回 最近(1973年)에 이르러서는 約 2.0回로 增加하였다. 標本調査에 의하면 1966년에는 44歲 以下の 有配偶婦人中 13%가 人工妊娠中絶의 實施 經驗이 있었으나 1971년에는 26%, 1973년에는 28%로 急激히 上昇하고 있으며 1973年末 實施한 人工妊娠中絶者 數는 約 40萬으로 推算되고 있다. 더우기 人工妊娠中絶 實施婦人中 75% 程度가 避妊經驗이 없는 婦人, 即 家族計劃事業의 影響을 받지 못한 婦人들이라는 事實은 事業의 보다 깊은 浸透가 必要하다는 것을 示唆해 주고 있다.

過去에는(1965年 以前) 都市 및 中産層以上の 婦人層에서 주로 人工妊娠中絶을 實施하였으나 最近에 이르러 漸次的으로 農村이나 低所得層의 婦人 사이에 流行되고 있어 앞으로 人工妊娠中絶도 政府家族計劃事業의 一環으로 적극 推進되어야 할 것이며 月經調節法(M. R. Kit) 이나 복강경등과 같은 간편한 方法의 普及이 時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人工流産에 대한 對策은 社會倫理 및 母子保健의 側面에서 慎重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一面을 充分히 考慮해야 함은 물론이다.

3) 綜合目標量 制度의 導入

現在까지의 事業目標量 設定은 各 市道의 可妊有配偶者 數와 家族計劃實施率을 基礎로 하여 選定하였고 事業評價에서도 주로 各 避妊方法別 目標對 實績을 爲主로 하여 왔다. 그러나 各 避妊方法에 대한 嗜好는 各 地域마다 相異한 것이므로 地域의 特性을 勘案하여 目標量을 配定해야 할 것이다.

家族計劃事業이 이미 設定된 人口增加率의 目標 達成을 위한 事業이니 만큼 目標量 設定은 不可避한 것이다. 다만 全國規模에서만 目標量을 策定하여 要員들이 目標量 達成에 있어 方法別로 伸縮性있게 事業을 遂行함으로써 重壓感이나 無理가 오지 않는 方案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劃一的인 目標量制度를 改善, 補完하기 위해 當院에서는 綜合 目標量制度를 構想하고 있다. 즉 最近 數年間の 各 地域의 實績을 토대로 出生抑制 婦人年數(CYP) 概念에 의해 그 地域의 事業을 方法別로 評價하고, 出生抑制 件數와 그 地域의 可妊女性數의 資料를 基礎로 한 綜合目標量制度를 導入코자 試圖하고 있으며, 이는 各 地域의 要員數, 施術醫 分布, 人口密度, 保健所와의 거리等 여러 要因을 勘案해서 配定하는 方法이다.

이와 같은 制度는 現在 臺灣에서 實施하고 있다. 臺灣에서는 各 避妊方法別로 目標을 割當하지 않고 地域의 수용能力을 勘案하여 出生防止 效果에 立脚한 點數에 의해 目標을 割當할 뿐 아

나라 實績도 點數에 의해서 評價하고 있다.

예를 들어 30歲 以前의 婦人이 子宮內裝置를 施術받은 境遇 1.4점, 30歲 以上の 婦人인 境遇는 1.0점, 精管의 境遇 30歲 以前(婦人)인 境遇 7점, 30歲 以上 35歲 以下인 境遇 6점, 35歲 以上인 境遇 5점, 먹는 避妊藥은 1싸이클當 1점, 콘돔은 10打當 1점을 各各 줌으로써 避妊方法을 嗜好 및 特性에 따라 要員이 調節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目標量制度를 導入하므로써 過去의 劃一的인 目標量 設定으로 인해 일 어났던 各種 副作用을 最少限 줄임으로써 보다 効率的인 事業運營이 可能할 것으로 期待된다.

이 目標量 問題를 改善하기 위해 1975年度에 選定된 地域內에서 示範 研究가 進行될 것임을 添言한다.

4) 啓蒙教育事業의 強化

다음 章에서 記述되겠지만 우리나라의 家族計劃事業은 아직 文化的인 沮害要因이 除去되지 못 하였기 때문에 啓蒙教育의 必要性은 더욱 高潮되어 가고 있다. 첫째로 現在 우리나라의 理想子 女數는 靜止人口를 達成하는데 必要한 數의 約 倍가 되고 있다.

따라서 向後 啓蒙教育事業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多子女를 願하는 固定觀念이나 男兒選好 에 對한 傳統的인 價値觀의 變化에 注意해야 할 것이며, 이제까지 家族計劃事業의 效果에 寄與 처 못한 젊은 年齡層이 啓蒙事業을 더욱 強化하여야 한다.

둘째로 家族計劃을 贊成하는 사람들에게 實踐하는 行動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데 啓蒙教育 事業이 必要하다.

家族計劃에 관한 평범한 知識이나 贊成이 곧 實踐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의 態度를 變化시킬 수 있는 強力한 動機가 必要한 것이며 일단 避妊을 채택한 婦人에 대하여는 繼續使 用率을 높이기 위하여 避妊中斷의 原因을 究明하여 이를 토대로 啓蒙을 實施함으로써 事業의 效果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 都市零細民 事業의 強化

近來의 經濟成長과 더불어 人口는 急激한 都市集中現象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零細地域의 家族計劃事業은 어려운 一面을 지니고 있다. 이들 地域住民은 農村에서 轉出한 젊은 年齡層으로 그들의 傳統的인 意識構造에 變化를 야기할 수 있는 特別한 動機가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生活는 不安定하고 이들이 零細地域에 定着하기 以前에 農村에서 避妊에 관한 知識이나 態度가 注入되지 못한 關係로 이들에 대한 家族計劃普及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니다. 특히 經濟, 社會, 文化(教育)的인 面에서 水準이 낮은 이들 地域의 出產率이 높은 반면에 家族計劃實施率은 農村 보다도 低調한 點을 감안할 때, 이들 地域에 대한 보다 強力한 支援이 要請되고 있다. 다행히 政府는 今年부터 UNFPA 지원에 依據 서울市 零細地域內에 10個 家族計劃센터를 設置運營中인바, 이는 零細地域住民의 特性을 고려하여 센터의 業務時間, 要員의 活動에 융통성이 있도록 운영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都市零細民事業은 서울市에만 局限할 것이 아니라 其他 大都市地域에도 擴大普及되어야 할 것이다.

6) 自費負擔實施者의 勸獎對策

現在 全體 家族計劃實施者의 1/3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自費負擔實踐者는 都市化의 促進 및 經濟의 成長에 따라 더욱 增大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積極的인 勸獎策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政府는 今年부터 事業의 質의 向上을 기하고 自費負擔에 의한 家族計劃 實踐者를 고취시키기 위한 方案으로 都市 中産層 住民을 對象으로 한 病院家族計劃事業을 全國的인 規模로 展開하고 있으며, 避妊에 所要되는 費用은 受益者 負擔을 原則으로 하되 費用의 一部分을 補助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事業은 政府 家族計劃事業을 無料에서 有料化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自費負擔 實施者를 더욱 強化하기 위해서는 政府에서 指定한 醫療機關 以外的 非指定醫療機關에도 루우프와 같은 避妊醫療器材를 普及할 수 있는 方案이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全國의 藥房과 같은 組織網을 통하여 먹는 避妊藥이나 콘돔을 손쉽게 供給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대한 手數料 問題는 적절한 對策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現行事業의 補完擴大를 위한 方案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제까지 事業에 動員되지 않은 기존社會 조직체를 最大限 活用하여 避妊普及를 極大化할 수 있는 一種의 “Saturation”에 관한 示範研究가 要望되고 있으며, 當 研究院에서는 이에 관한 研究를 檢討中에 있다.

3. 事業展望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過去 10餘年間 出産力 및 人口增加가 급격하게 低下된 것은 家族計劃事業 以外에 다른 社會·文化的인 要因이 적지 않게 作用한 結果이나, 1975年度를 起點으로 볼 때 上記와 같은 有利한 要因은 더 이상 期待할 수 없고 오히려 不利한 人口學的 要因이 到來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와같이 家族計劃事業의 展望을 흐리게 만드는 몇가지 主要原因을 分析하여 보면,

첫째로 可妊女性의 數가 1971年代부터 急上昇하고 있다. 이러한 增加趨勢가 總人口의 增加率을 훨씬 上廻하여 1960年을 基準으로 하였을 때 10年後인 1971년에는 15%가 增加한 404萬名이 있으나 다시 10年後인 1981년에는 무려 61%가 增加한 558萬이란 놀라운 숫자로 急上昇할 것이다. 이러한 現象을 6.25동란에 이어서 일어난 Baby Boom 시기에 出生한 子女들이 지금은 可妊期에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出産力은 低下한다 할지라도 總 出産數는 增加될 것으로 展望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제까지 出産力 低下에 많은 影響을 미친 女性의 初婚年齡의 上昇도 더 이상 期待할 수 없으며 1970年代부터는 오히려 低下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現在 우리나라 女性들의 初婚年齡은 23歲로 先進國의 初婚年齡과 比較해 볼때 同等水準이라고 看做되고 있으며 經濟가 高度로 成長된 美國에 있어서도 結婚年齡은 21歲를 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셋째로 우리나라 國民들의 傳統的인 意識構造, 특히 子女에 대한 價値觀에 큰 變動을 가져올 수 없다. 즉 우리나라의 出産力水準은 1960年度의 合計出産率 6에서 1970년에는 4로 급격히 低下되었으나 그 후에는 계속 이 水準을 維持하고 있을뿐 아니라 大都市에 있어서 젊은 年齡群에서 年齡別 出産率이 오히려 上昇하는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또한 理想子女數에 있어서도 1960年 初期의 3.9名으로 부터 1971년에는 3.7名으로 별로 變動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이는 人口成長을 저지하는데 필요한 數의 約 2배가 되는 것이다.

또한 男兒選好觀은 계속 강하게 影響을 미치고 있으며 理想男兒數는 理想女兒數의 2배가 될 뿐만 아니라 理想男兒數는 2男을 固守하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 두子女를 권장하는 弘報事業의 目標을 達成하기란 遙遠한 감이 있다.

行動科學研究所에서 發表한 調查結果에 의하면 아들 둘에 딸 하나를 가진 婦人들의 避妊實施率は 58.7%인데 반하여 딸만 둘 또는 셋만 가진 婦人의 實施率は 各各 18.5%, 13.8%로 아들이 있어야 避妊이나 斷産을 實施하는 우리나라 婦人의 男兒選好思想은 아직도 불식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로 政府는 1976年の 人口를 3,435萬으로, 1986년에는 3671萬名 内外로 維持하는 것을 目標 人口로 設定하고 있으나 이는 婦人의 平均子女數를 3名 以內로 줄여야 實現可能한 것이며 現在 우리나라 婦人의 平均 子女數는 4名을 維持하고 있으므로 이를 3名以內로 줄인다는 일은 過去 6名에서 4名으로 低下시키는 것과는 달리 매우 막중한 課業이 아닐 수 없다. 설령 婦人의 平均 子女數가 2名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人口는 2050年以前에는 人口增加가 零이 될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도 時急한 問題는 家族計劃이 生活化되어서 小子女家族에 관한 國民의 價値觀이 形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家族計劃事業은 國民의 將來指向의 社會運動으로 人口資質의 向上, 家庭幸福의 추구, 國民經濟의 上昇, 社會福祉의 實現을 위한 巨族의 國家的 그리고 人類平和에 이바지하는 事業으로 昇化시켜야 할 것이다.

4. 結 論

이와같이 향후 家族計劃事業은 過去와는 달리 여러가지 저해 要因을 直面하게 됨에 따라 1981年の 人口增加率 1.3%를 達成하여 經濟成長率을 極大化하고 國民所得 1,000 弗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家族計劃事業에 動員되지 않았던 活用可能한 모든 科學的 接近方法을 試圖해야 할 것이며 人口調節 政策을 위한 보다 強力한 政策의 인 뒷받침이 隨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事項을 早速히 履行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各種 手當 또는 稅金賦課에 小子女家族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한다. 家族計劃事業의 궁극적 目的은 國民經濟의 向上에 있고 國民經濟는 扶養家族의 子女數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家族計劃事業에 관한 國民의 社會的 關心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措置라고 생각된다.

지난 6日 當院에서 開催한 “1974年 家族計劃 評價會”에서 이러한 制度의 採擇을 政府에 建議한 바 있으며, 政府는 綜合所得稅制 實施에 있어서 基本 控除額을 子女數 3名까지 혜택을 주도록 所得稅法改正案이 推進中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人口調節政策은 家族計劃事業을 推進하고 있는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아」등 國家에서 이미 採擇하고 있는 政策으로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稅制를 통한 小子女家族의 實質所得의 向上(싱가폴)
- ◀ 小子女家族에게 公共住宅의 入住 優先權 賦與(싱가폴)
- ◀ 女性 勤勞者의 有給 出産休暇 및 出産順位에 따른 分娩料 等の 差를 통한 小子女家族 形成의 動機誘發(말레이시아)
- ◀ 晩婚獎勵 政策을 擇하고 있는 國家도 있으며 子女數에 따른 軍服務期의 短縮, 免除, 또는 獨子優待(대만)
- ◀ 癌檢査를 의무화하여 避妊期間이 긴 경우 보너스 支給(말레이시아)
- ◀ 母子登錄制를 통한 醫療惠澤을 賦與함과 同時 강력한 避妊을 勸獎(싱가폴)

둘째로 家族計劃을 포함한 綜合的인 人口政策을 관장하는 “人口政策 審議會를 大統領 또는 國務總理室 직속으로 設置함이 要望된다.

現在 人口政策에 관한 事項은 經濟企劃院에서, 家族計劃 事業은 保社部에서, 그리고 人口教育 등은 文敎部에서 關望하고 있으나 人口問題는 經濟, 社會, 勞動 等 政策의 基本이 되는 것이므로 人口政策의 一環인 家族計劃事業은 各 分野의 諸 政策과 綜合的으로 計劃되고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政府部處間的 有機的인 協助가 絶실히 要請되나 이러한 協助는 모든 政府部處를 調整할 수 있고 行政力을 行事할 수 있는 高位層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家族計劃을 포함한 綜合的인 人口政策을 強力하게 推進할 수 있는 人口政策審議會를 設置함이 要望된다.

셋째로 各級 學校의 人口教育을 강화하여야 한다. 앞에서 言及한 우리나라 國民들의 傳統的인 意識狀態, 특히 男兒選好 等에 關한 家族計劃事業의 沮害要因을 短期間의 啓蒙事業에 의해서 拂拭될 수 없는 것이며 바로 이 學校人口教育에 의해서 長期的인 眼目으로 解決될 수 있는 것이다. 人口問題 解決의 한 方策이 家族計劃이고 家族計劃은 性問題와 직접 關連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取扱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올바른 知識과 態度를 갖도록 하여 小子女에 대한 觀念이나 家族計劃이 어려서 부터 生活化되도록 學校人口教育을 強化시켜야 한다.